

도청신도시 분기별 인구 증가 100명 안 돼

(작년 4분기)

77명 늘어 첫 두 자릿수 대 진입
2단계 조성사업 확장 착공으로
신규 공동주택 공급 흐름 끊겨
출산·보육 등 인프라도 부족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준공에 이은 2단계 사업의 확장 착공으로 지난해 신규 공동주택 공급의 흐름이 끊긴 데다, 출산·보육·교육·의료 등 젊은 부부 맞춤형 인프라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서다. 2016년 입주를 시작한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그해 5월 1천 498명에서 이듬해 말 8천63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말 1만3천662명, 2019년 말 1만7천443명, 2020년 말 2만2천4명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정주인구까지 더하면 2만5천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경북도는 추산한다. 공동주택이 집중 공급된 예천군은 신도시 효과로 2015년 4만4천674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5만5천739명으로 1만명 넘게 늘었다.



“낙동강 모래톱을 그냥 두세요” 22일 대구 달성군 박석진교 인근에서 열린 ‘낙동강 모래톱 걷기’ 행사에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넓게 펼쳐진 모래톱을 배경으로 ‘물 채우지마,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주제로 현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래톱 걷기 답사는 다음 달 초까지 밖에 할 수 없는 한시적인 체험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에 낙동강 인근 농민들이 지하수를 통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합천창녕보의 수문을 닫아서 물을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철 기자 woon@maeil.com

규정 어기고 2년간 총회 안한 경산예총

원칙상 연 1회 2월까지 개최
임기 끝난 인사 선출도 안해
일부 회원들 감사 진정 제출
논란되자 긴급 서면 이사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산지회(이하 경산예총)가 새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긴급 서면 이사회를 열어 논란이다. 한국예총 정관과 경산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까지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제6대 지회장 출범 이후 2020, 2021년 2년 연속 총회를 열지 않았다. 총회는 이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임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의결한다. 특히 2020년 2월 2년 임기가 끝난

수석부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총회를 열지 않아 새로 선출하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경산예총은 임기가 이미 끝난 전반기 감사 2명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각각 2020년과 2021년 결산감사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감사 자격이 없음에도 감사보고를 한 것이다. 또 제7대 경산예총 임원선거(1월 26일)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석부회장이 맡아야 하는데, 공식이어서 대의원 중에 1명이 맡아 지난 7일 지회장 권한인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하는 등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이사 등이 “경산예총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급기야 50여 명의 회원들이 연대 서명해 최근 경북예총 회장 앞으로 경산예총에 대한 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북예총은 지난 21일 경산지회에서 현장 실사를 하기도 했다. 총회 미개최 등 문제가 발생하자 경산예총은 지난 22일 17명의 이사들에게 긴급 서면 이사회 개최를 SNS 등으로 알렸다. 안전으로 이미 지난 2019, 2020, 2021년도 결산(안)과 제19차 정기총회 단일 안전개최(안) 등에 대한 가부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이사는 “이 같은 서면 이사회는 경산예총이 그동안 총회 개최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일부 안전을 소급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명진 경산예총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금지 등의 사정으로 지난 2년 동안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회원의 진정으로 경북예총의 현장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만 16세부터 정당활동 가능 ‘교실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

정치권 학생 조직 이용 가능성
진영 갈등 학교폭력 심화 우려
제도적 장치·교내 교육 등 필요

최근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학부모 및 학교 현장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학업이 양립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1 학생은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고3 학생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내에서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1 자녀를 둔 김모(48) 씨는 “학생들이 지나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상대 진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 활동과 학업이 상충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교내 진영 갈등이 과열되는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교 교사 A씨는 “청소년들은 반에서 인기 있고 힘 있는 학생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할까 걱정된다”며 “각 정당에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맡을 학생을 물색해 은밀히 접근하거나, 학생회 조직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고교 교사 B씨는 “정당 가입 홍보 활동이 격해져 수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심화할 경우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교육 기관”이라며 “교육 당국은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학교가 정치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당원 모집이나 홍보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김재성 인터넷기자 kimsorry@maeil.com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27일 대법 선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60) 전 중앙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딸 조민 씨의 중앙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이 둘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LOTTO 복권 (제999회)

당첨번호	1, 3, 9, 14, 18, 28	
2등 보너스 숫자	34	
등위	당첨조건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13,274,790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0,229,843
3등	5개 숫자 일치	1,371,18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총당첨금은 총판매금액의 50% 이상임

100% 원금보장

가평 제 2 농장 창립회원 모집

건강에 좋은 앞새산삼 매일 2뿌리 제공 + 매월 배당금(100만원) 지급



가평 제 2 농장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지리산 앞새삼 앞새산삼 가평 제 2농장 조감도

가평군 설악면 23,504m²

(주)앞새삼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직영농장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1구좌 6,000만원으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 확정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매일 5~7년근 앞새산삼 60뿌리를 제공합니다. 원금도 철저히 보장되며,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원금보장 지급보증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 못 할 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지리산 앞새삼 연혁

- ▶ 1989년 - 우리농산 설립(경기도 남양주시)
- ▶ 2006년 - 지리산 산삼 영농조합법인 설립
- ▶ 2007년 - 산삼 영농조합 산하 전국 24개 직영 농장 확대
- ▶ 2009년 - 한국 관광 평가 연구원 BEST BRAND 기업 인증
- ▶ 2012년 - 청와대 사랑채 산양산삼 전기도 우수상
- ▶ 2015년 - 산양삼 경옥고 특허 출원
- ▶ 2016년 - 앞새삼 유기농 스마트 농업 개발 성공
- ▶ 2019년 - (주)앞새삼 설립

◆ 현재 다수의 메이저 거래처에 대량 공급 중



황제옥고 (산삼경옥고)



산양삼 진액



황제 옥고수(수)

★ 투자금 3년후 전액 반환 ★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 발행〉

※ 본 농장은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을 모집합니다.

구분	투자금	확정수익금	앞새산삼제공	회원기간
골드	3,000만원	매월50만원	가입시 30뿌리 매월 2번 30뿌리씩 제공	3년
V.I.P (부부형)	6,000만원	매월100만원	가입시 산삼경옥고 1kg 2박스 + 매월 60뿌리씩 제공	3년

온라인에서 **고천규 앞새삼** 검색해 보세요!

고 천 규

검색

본사가 직접 농장 재배 및 유통까지 책임집니다!!

분양의 02-566-4787

부산 및 영남 지사 모집중!